

三國時代 忠孝思想에 對한 考察

— 『三國史記』 「列傳」을 中心으로 —

김 병 주 *

<目次>

- | | |
|-----------------------|-------------------|
| I. 緒論 | IV. 三國時代 忠孝思想의 特徵 |
| II. 三國時代 忠孝思想의 成立 | V. 結論 |
| III. 『三國史記』에 나타난 忠孝思想 | |

<국문 초록>

忠孝思想은 동양 문화권 내에서 계승·유지되어 오면서 하나의 傳統思想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孝는 서양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양 고유의 사상이고, 초기 儒學에 나타난 忠은 서양국가에 있어 君主나 國家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충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다만, 후대 동양문화권에서도 초기에 보이는 충의 모습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충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충효사상은 상당 기간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현대인의 정신에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방법과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삼국시대는 우리 민족이 충효이념을 받아들인 최초의 시기로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한자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각종 외래사상이 전래·수용·전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사상을 체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박사과정 / tjrxks@kongju.ac.kr

계화하고 제반 학술을 교육하는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그 중 충효사상은 중앙집권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강조되었고 삼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외세의 위협으로 인해 공적인 국가사상이 굳어지면서 효보다 충이 사상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록 충이 사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삼국시대 충효관은 보통 충을 미루어 효에 이르는 모습이 아닌 충과 효가 하나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당대의 충과 효는 상호 분리되거나 어느 한 가지를 미루어 도달하는 것이 아닌, 충이 곧 효고 효가 곧 충이 되는 충효일치관적 성격을 보인다.

【주제어】 충효사상, 유학, 삼국시대, 동양문화, 국가사상

I. 緒論

역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곧 역사가 된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그 시·공간 안에는 다양한 생활문화와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삼국시대에는 유학이 정치이념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 이념은 삼국의 고대 국가 건설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유학의 핵심인 孝悌忠信과 仁義禮智의 정신은 정치와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상 가운데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이어져 온 사상이 충효사상이다. 충효사상은 동양 문화권 내에서 계승·유지되어 오면서 하나의 전통사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효는 서양문화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동양 고유의 사상이고, 초기 유학에 나타난 충은 서양국가에 있어 군주나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충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다만, 후대에 동양의 충도 초기와는 달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충으로 변질된다.

삼국시대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한자의 사용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외래사상이 전래·수용·전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제반 학술을 교육하는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 진보를 이룩하였다. 학술과 철학사상의 수용은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그 중 충효사상은 중앙집권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충효가 先秦儒學에서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었고 그 개념이 처음 체계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보고 충효의 기본개념을 선진 유학의 그것에서 도출하여 삼국사기에 나타난 충효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 한반도 삼국의 충효가 선진유학의 충효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三國史記』, 『列傳』이 신라 중심의 서술로써 삼국의 충효사상을 모두 대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當代의 보편적인 충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三國時代 忠孝思想의 成立

유학은 堯·舜·禹·湯·文·武王·周公에 이어 孔子와 孟子로 이어졌다. 유학을 국교화하면서 봉건지배를 뒷받침하는 학문으로 숭상한 이래 봉건체제의 바탕으로 효와 충을 핵심사상으로 더욱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그대로 삼국시대 각 나라에 전래된다. 유학사상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는 삼국시대이다. 고구려는 서기 372년 小獸林王代에 국립 대학인 太學을 세워 『五經』과 『三史』, 『文選』 등을 교육하였다. 이것으로 유학의 정치원리에 입각한 통치, 유교경전 학습을 통한 인재양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박사제도를 두었으며 일찍부터 한문을 사용하여 『百濟本紀』, 『百濟新撰』, 『書記』 등의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특히, 4세기 후반 王仁과 阿直岐가 일본에 유학을 전파

하게 된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유학이 전래 되었다. 682년 신문왕대에 편제나 교과내용을 유학에 입각하여 국학을 세워 당대에 많은 유학자를 배출하였다. 삼국의 유학 전래 시기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그 내용 면에서는 유가적 정치이념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유가의 예법에 따라 宗廟를 세워 효의 정신을 더욱 중시하게 된다. 삼국 이전의 유학의 전래는 서기전 3세기 衛滿朝鮮으로부터 유학이 부분적으로 전래되었으며, 그 이전 위만 조선시대에 국제 외교 관계를 행하였다고 하니, 당시 한자가 전래함과 아울러 한자 속에 내포한 유교 사상을 이미 습득하고 있었던 것이라 추측된다.¹⁾ 이러한 충효사상이 삼국 각 나라에 들어오면서 自國의 수호와 가정 윤리로서 아무 거부 없이 수용된다. 이것은 이미 각 나라 안에도 충과 효의 개념이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자는 세상에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을 개탄하고 ‘九夷에 거처하고자 하였으며’²⁾, 또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겠다.’³⁾라 하였으니 공자 교학 사상이 전래하기 이전에 있어서도 고대 한국은 ‘君子國’이라는 칭호를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⁴⁾

이러한 유교사상 중 부모를 섬기고 존경하는 ‘효’와 군주나 나라에 대한 ‘충’이 당시 삼국 상호 간의 대내적인 갈등과 외세 등의 항쟁이라는 시련을 통하여 자주 의식의 각성과 더불어 고대 국가의 발전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효의 개념은 국가수호의 정신인 충의 개념을 내포하여 효사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가족윤리인 효가 국가윤리인 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⁵⁾

더 나아가 나라와 군주에 몸을 희생하는 것이 곧 충이 되고 효가 됩

1) 류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p.15.

2) 『論語』, 「子罕」, “子欲居九夷 或曰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3) 『論語』, 「公冶長」, “道不行 乘桴 浮于海”

4) 류승국, 앞의 책, p.16.

5) 金日煥, 「忠孝倫理의 思想的 體系와 理念的 展開」, 『教育研究』 14집, 公州大學校 教育研究所, 1998, p.249. 참조.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삼국에 유학이 전래되기 이전 중국 漢代 유학의 핵심 사상이 충효임을 고려해 볼 때, 삼국시대 또한 유학의 전래 중 충효사상이 최대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어 전래되었음은 當然之事일 것이다. 또한 당대의 국제 정세가 삼국 분열로 인한 대립과 중국에 대한 견제로 충에 대한 인식이 효보다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신라의 ‘世俗五戒’에서 ‘事君以忠’을 그 첫째로 삼고, ‘事親以孝’를 다음으로 삼은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Ⅲ. 『三國史記』에 나타난 忠孝思想

1. 忠思想

1) 충을 위한 犧牲

충을 위한 희생은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복종과 국가에 대한 報國이라는 일면이 크게 강조된다. 이것은 당대 사회상의 왕권 신장이나 국가관의 시각에서 볼 때, 국가를 전제로 하는 공통의 윤리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용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희생에 의한 충은 국난의 위협에 더욱 국가와 민족의 공적인 사상으로 굳어지게 된다. 관창이 황산벌 싸움에서 전사할 때 그 아버지 品日은

품일은 아들의 머리를 잡고 소매로 피를 씻으며 말했다. “내 아들의 면목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능히 나라를 위하여 죽을 줄을 알았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⁶⁾

라고 하여 국가에 대한 개인 희생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孝經』에

6) 『三國史記』, 「列傳第七」, <官昌>, “品日執其首 袖拭血曰 吾兒面目如生 能死於王事 無所悔矣”

서 ‘효란 아버지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다음에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하는 데 있다.’라 하여 충을 효의 연장선으로 보았던 관념이 효를 통한 충이 아닌 ‘충’이라는 하나의 관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에 대한 충은 왕권강화를 위한 핵심 사상으로 왕과 신하는 물론 백성의 행동 규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김유신의 다음 말이 주목된다.

天道는 양이 강하고 음이 약하다. 人道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는데 혹, 그것이 바뀌게 되면 큰 混亂이 일어난다.⁷⁾

왕과 신하를 외면적 상하 종속관계로 보고 충은 왕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희생, 나라에 대한 보국정신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복종과 희생은 충에 대한 관념에서 첫 번째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국가와 임금이 주인이 되며, 애국심을 강조하게 된다. 김유신이 백제와의 싸움을 마치고 凱旋 도중 다시 적의 침입 소식을 듣고 전장으로 재삼 출정을 하는 내용에서 또 다시 나타난다.

유신은 왕명을 받자 처자도 만나지 않고 즉시 말을 몰아 백제군을 역습하여 패주시키고 2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유신이 3월에 돌아와 왕궁에 복명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이었다. 백제 병사가 다시 출동하여 국경에 주둔하며, 장차 군사를 크게 동원하여 신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급보가 왔다. 왕은 다시 유신에게 말했다. “공은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대비하기 바란다.” 유신은 또 다시 집에 들르지도 않고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를 수선하여 서쪽으로 떠났다.⁸⁾

7) 『三國史記』, 「列傳第一」, <金庾信>, “天道則陽剛而陰柔 人道則君尊而臣卑 苟或易之即爲大亂”

8) 『三國史記』, 「列傳第一」, <金庾信>, “庾信聞命即駕 不見妻子 逆擊百濟軍走之 斬首二千級 三月 還命王宮 未歸家 又急告百濟兵出屯于其國界 將大舉兵侵我 王復告庾信曰 請公不憚勞邁行 及其未至備之 庾信又不入家 練軍繕兵向西行”

이처럼 개인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왕명에 대한 충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당대의 대의와 부합하는 것이다. 당대의 충사상이 사적인 이해나 개인관계 보다는 대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충 앞에서는 효가 밀려 나야 하며, 효는 충의 바탕 아래에서 완성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인 이해나 개인관계를 뛰어 넘어 自己犧牲 즉 죽음을 통한 충을 몇몇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유가 칼을 음식 그릇에 숨겼다가 앞으로 달려들어 칼을 뽑아 위장의 가슴을 찌르고 그와 함께 죽으니 위나라 군중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다.⁹⁾

제상이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명을 받들고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대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라 하고, 드디어 그 길로 곧장 왜국에 들어갔다.¹⁰⁾

그는 곧 병부로 가서 삼천당에 속하기를 청하고, 마침내 군대를 따라 적지로 갔다. 깃발과 북이 서로 어울리자 창과 칼을 잡고 적진으로 돌진하여 힘껏 싸우다가 적군 여러 명을 죽인 다음 자신도 죽었다.¹¹⁾

-
- 9) 『三國史記』, 「列傳第五」, <密友·紐由>, “王間行轉輒 至南沃沮 魏軍追不止 王計窮勢屈 不知所爲 東部人紐由進曰 勢甚危迫 不可徒死 臣有愚計 請以飲食往犒魏軍 因伺隙刺殺彼將 若臣計得成 則王可奮擊決勝 王曰 諾 紐由入魏軍詐降曰 寡君獲罪於大國 逃至海濱 措躬無地矣 將以請降於陣前 歸死司寇 先遣小臣 致不腆之物 爲從者羞 魏將聞之 將受其降 紐由隱刀食器 進前拔刀刺魏將胸 與之俱死 魏軍遂亂”
- 10) 『三國史記』, 「列傳第五」, <朴堤上>, “堤上報曰 臣雖奴才既以身許國 終不辱命 然高句麗大國 王亦賢君 是故臣得以一言悟之 若倭人 不可以口舌諭 當以詐謀 可使王子歸來 臣適彼 則請以背國論 使彼聞之 乃以死自誓 不見妻子 抵栗浦 汎舟向倭 其妻聞之 奔至浦口 望舟大哭曰 好歸來堤上 回顧曰 我將命入敵國 爾莫作再見期 遂徑入倭國”
- 11) 『三國史記』, 「列傳第七」, <驟徒>, “乃詣兵部 請屬三千幢 遂隨軍赴敵場 及旗鼓相當 持槍劍突陣力鬪 殺賊數人而死”

유유, 박제상, 취도의 행동은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 영달보다는 왕이나 국가에 대한 절대적 희생의 예이다. 죽음을 알고도 나라에 충성을 바친 것이다. 이것은 『孝經』에 나타난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충과 효가 근본적으로 뜻을 달리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한 국가에 대한 희생은 본질적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立身揚名’의 한 형태로 나타나 순국이 보국이며, 또한 효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장에서 전사한 관창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였으며, 관창의 주검 앞에서 그 부친 품일은 ‘能死於王事’를 후회로 여기지 않고 아들의 죽음을 정당화 시켜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

백제 말기의 관직이 達率이었던 階伯은 蘇定方이 이끄는 羅唐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決死隊 五千人을 뽑아 대항하며 말하기를,

한 나라의 병사로 羅唐의 대병을 상대하니, 나라의 存亡을 알 수 없다. 내 妻子가 잡혀 奴婢가 될 지도 모르니, 살아서 욕을 보는 것보다 죽어서 快함만 못하다.¹²⁾

越나라 句踐은 오천의 병사로 오나라 칠십만 대군을 무찔렀다. 오늘은 모두 다 奮勵하여 승부를 결단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¹³⁾

라고 말하고, 마침내 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여기서 계백의 행동은 맹자의 “舍生而取義”¹⁴⁾와 “患有所不辟”¹⁵⁾와 흡사하다.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함은 모든 사물의 떳떳한 實情이나, 원하고 싫어함이 生死보다

12) 『三國史記』, 「列傳第七」, <階伯>, “以一國之人 當唐羅之大兵 國之存亡 未可知也 恐吾妻孥沒爲奴婢 與具生辱 不如死快”

13) 『三國史記』, 「列傳第七」, <階伯>, “誓衆曰 昔句踐以五千人破吳七十萬衆 今之日宜各奮勵決勝 以報國恩”

14) 『孟子』, 「告子上」,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15) 『孟子』, 「告子上」,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

심함이 있는 것은 바로 떳떳한 의리의 양심인 것이다. 계백의 이러한 죽음을 각오함과 가족의 생을 버림은 節義와 忠誠을 겸하여 실천한 대표적 例일 것이다.

2) 국가를 위한 忠諫

국가를 위한 충간은 임금이나 나라를 위한 희생보다는 그 내용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충이 爲國忠節에 따른 무조건적인 自己犧牲 뿐만 아니라, 直諫을 통한 충 역시 희생을 통한 충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으며, 충의 본질적 모습인 ‘盡己之謂忠’에 보다 가깝다. 고구려 창조리의 例를 들면 烽上王이 지진이 나고 흉년이 들어 壯丁들은 流離하고 老幼들은 구렁텅이에 빠져 사람을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15세 이상의 남녀를 동원하여 궁실을 수리하자

조리가 말했다. “임금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仁한 것이 아니며,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을 하지 않으면 忠이 아닙니다.”¹⁶⁾

라 하여, 直諫하는 자세를 말하였다. 어떤 결과가 오든 왕의 행동 변화를 강요하기에 앞서 자신을 다하는 충의 마음으로 諫하는 것, 이것은 당대의 충이 무조건적인 종속적 개념이 아닌 내면의 발로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烽上王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자 여러 신하와 더불어 왕을 폐위하고자 하여 烽上王이 자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人君의 本分이 백성을 돌보아주는 데 있고, 신하의 本分은 人君의 그릇된 政事를 하지 않도록 보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왕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거나 본성이 邪惡하여 국가나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면 왕도 폐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 당시에 충이 인군에 대한 맹목적 희생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6) 『三國史記』, 「列傳第九」, <倉助利>, “助利曰 君不恤民 非仁也 臣不諫君 非忠也”

『三國史記』, 「百濟本紀」를 보면 충성스런 신하의 한 사람이었던 佐平 成忠은 의자왕이 궁녀와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그칠 줄 모르자, 신하의 본분에 서서 極諫을 하니 왕은 그를 옥에 가두게 하였다. 하지만 옥중에 서도 成忠은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으니 원컨대 한 말씀 올리고 죽겠습니다. 신이 항상 時勢와 變遷을 관찰하건데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用兵에는 반드시 그 지리를 살펴 택할 것이니, 上流에 처하여 적을 맞이한 후에야 보전할 수 있습니다.¹⁷⁾

성충은 이러한 건의와 아울러 전쟁에 대비한 방책을 진언하였다. 성충이 신하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 왕의 불의를 간하다가 투옥된 후에도 항상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여 시변을 살펴왔고, 죽음에 임해서도 국가를 위한 계책을 올린 사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신하의 도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곧 성충의 내면에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盡言하는 충사상이 깊이 자리 잡아 이를 실천에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라에 대한 충의 모습은 死後에도 보인다. 眞平王에게 金后稷의 간절한 충간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세 아들에게

내가 신하로서 임금의 단점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였다. 대왕은 놀고 즐기는 일을 그만 두지 않아 폐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것이다. 죽어서라도 꼭 임금을 깨우쳐 주려하니, 나의 시체를 대왕이 사냥 다니는 길옆에 묻어라.¹⁸⁾

17) 『三國史記』, 「百濟本紀第六」, <義慈王16年條>, “成忠歿死 臨終上書曰 忠臣事不忘君 願一言而死 信上觀時察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必審澤其地 處上流以延適 然後可以保全”

18) 『三國史記』, 「列傳第五」, <金后稷>, “吾爲人臣 不能匡救君惡 恐大王遊娛不已 以至於亡敗 是吾所憂也 雖死必思有以悟君 須瘞吾骨於大王遊畋之路側”

라고 유언하였다. 이것은 살아서 충성으로 간언하고 죽어서도 그 마음을 잊지 않은 신하의 바른 도리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왕이 후에 깨닫고 종신토록 사냥을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金后稷의 충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충간의 모습은 直諫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諷諫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薛聰은 『花王戒』를 神文王에게 바쳐 올리면서 白頭翁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무릇 임금 된 자가 간사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적습니다. 그 때문에 孟軻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으며, 馮唐은 郎署에 잠기어 흰 머리가 되었습니다.¹⁹⁾

왕의 잘못을 꾸짖고 바른길로 인도하여 후대 王者의 戒鑑으로 삼게 한 것이다.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諫言 이외에도 자신의 사적인 명예를 버리고 대상에 대한 충이 아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이 양심을 대하는 충도 있다. 故國川王이 나라의 숨은 인재를 찾았을 때, 처음으로 천거된 晏留는 곧 왕에게 자신의 재능은 중대한 정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신을 대신할 乙巴素를 천거하였다.

微臣은 용렬하고 우둔하여 참으로 큰 정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암록곡 좌물촌의 乙巴素라는 이는 琉璃王의 大臣 乙素의 후손입니다. 성질이 剛毅하고 智慮가 깊은데, 세상에 등용되지 못하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自給하고 있습니다. 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될 수 없습니다.²⁰⁾

19) 『三國史記』, 「列傳第六」, <薛聰>, “凡爲君者 鮮不親近邪佞 疏遠正直 是以 孟軻不遇以終身 馮唐郎潛而皓首 自古如此 吾其柰何”

20) 『三國史記』, 「列傳第五」, <乙巴素>,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四鴨淥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라는 사적인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마음을 다하여 賢者를 드러내는 것도 충이라 할 수 있다.

2. 孝思想

1) 부모를 위한 犧牲

희생을 통한 효는 殺身成仁, 捨生取義와 같은 사회적 성격과 함께, 덕행, 용기까지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실천 의미가 있다.²¹⁾ 大武神王의 아들인 好童은 異服母의 모함을 받고

내가 만약 이를 해명한다면 이는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어 부왕의 근심을 만들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효라고 하겠는가?²²⁾

라 하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자살하였다. 이것은 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은 자기희생을 통한 효의 한 단면이다. 이를 보면 당시 사회에서 효가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희생을 통한 효행은 尙德과 聖覺과 孝女知恩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尙德은 밤낮으로 부모의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면서 특별히 봉양할 방법이 없자 자기의 넙적 다리 살을 베어 먹였으며,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어 병을 치료하였다.²³⁾ 聖覺 또한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나,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채소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리 살을 베어 먹

21) 申滄植, 「韓國古代史에 나타난 忠孝思想」, 『研究論文集』 11집, 誠信女子大學校, 1979, p.15.

22) 『三國史記』, 「高句麗本紀第二」, <大武神王15年條>, “我若釋之 是顯母之惡 貽王之憂 可謂孝乎 乃伏劍而死”

23) 『三國史記』, 「列傳第八」, <尙德>, “父母飢且病 母又發癰 皆濱於死 尙德日夜不解衣 盡誠安慰 而無以爲養 乃割腓肉以食之 又吮母癰 皆致之平安”

였다.²⁴⁾ 이것은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효 사상에는 배치된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奉養에 자신을 버려가면서 희생한 것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당대의 효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向德과 聖覺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집과 땅을 하사하고 비석을 세워 사적을 기록하여 표본으로 삼은 것²⁵⁾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나 효를 숭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孝女知恩은 혼인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집 중을 자처하여 그의 母를 봉양하여²⁶⁾ 자신의 사적인 욕망은 버리고 어머니에 대한 순수한 효의 마음을 실천하였다. 孝女知恩의 故事는 『三國遺事』에 ‘貧女養母’라는 내용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중 “知恩은 다만(어머니의) 배만 부르게 봉양하고 색난을 잃었음을 탄식하였다.”²⁷⁾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효의 마음이 다만 口腹의 봉양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마음까지 살피는 정성에서 나온 고차적 의미임을 알 수 있다. 口腹之養의 물질적 봉양보다는 정신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며, 평소 온화한 낮빛을 잃어버린 자신의 불효를 한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論語』, 「爲政」²⁸⁾에 나오는 ‘色難’과 一脈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대 효의 사상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영향을 주었으며 유학적 효행이 중요 윤리행위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유한 조상숭배사상에서 나온 효가 유학적 개념의 효 사상 수용으로 체계화되고 강조되어 결국 유학적 효 사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24) 『三國史記』, 「列傳第八」, <聖覺>, “以老病難於蔬食 割股肉以食之”

25) 『三國史記』, 「列傳第八」, <向德>, “下教 賜租三百斛 宅一區 口分田若干 命有司 立石紀事 以標之”

26) 『三國史記』, 「列傳第八」, <孝女知恩>, “獨養其母 年三十二 猶不從人 定省不離左右 而無以爲養 或傭作或行乞 得食以飼之 日久不勝困德 就富家請賣身爲婢 得米十餘石 窮日行役於其家 暮則作食歸養之”

27) 『三國遺事』, 「孝善第九」, <貧女養母>, “女嘆己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28) 『論語』, 「爲政」, “子夏 問孝 子曰 色難 有事 弟子 服其勞 有酒食 先生饌 曾是以爲孝乎”

또한, 효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희생뿐만 아니라, 자식의 道理로서 諫言하는 내용으로도 나타난다. 貧寒한 薛氏女의 부친을 대신해서 軍役に 자청한 嘉實에게 약속한 婚事를 끝까지 지킨 薛氏女의 행동과 平岡王의 公主가 父王의 명을 거역하고 溫達에게 출가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의를 버리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 어찌 사람의 정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으니 다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³⁰⁾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고치십니까? 匹夫도 食言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존에 있어서라?³¹⁾

끝까지 부친의 명을 어긴 薛氏女와 平岡公主의 행실을 볼 때, 효가 무조건적 맹종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孝經』의 「諫爭章」에서 보이듯, 부모의 뜻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맹종만이 아닌 간언을 통하여 부모의 잘못을 고치는 데에서도 당대 효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2) 국가를 위한 犧牲

효는 보통 부모에 대한 희생이나 부모를 위해 부모의 잘못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부모나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만 효에 대한 관념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함에

29) 千仁錫, 「三國時代 儒學思想의 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30) 『三國史記』, 「列傳第八」, <薛氏女>, “而棄信食言豈人情乎 終不敢從父之命 請無復言”

31) 『三國史記』, 「列傳第五」, <溫達>, “大王常語 汝必爲溫達之婦 今何故改前言乎 匹夫猶不欲食言 況至尊乎”

있어 그 사이에 국가라는 조직이 존재하기도 한다.

백제와의 교전 중 戰勢가 불리해진 신라의 將帥 欽春과 그 아들 盤屈의 대화 내용이다.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이 으뜸이요, 아들이 되어서는 효성이 으뜸이나, 위급함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만 충성과 효성이 모두 온전해진다.³²⁾

라고 하여 盤屈이 적진에 돌입하여 힘껏 싸우다 전사하게 하였다. 나라가 위급함을 당하자 나라에 대한 자신의 희생을 곧 효로 여기고 있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국가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효를 충의 하부구조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충을 통한 효의 구현은 충이 곧 효라는 인식 하에 나라에 대한 희생이 당연시되는 사상을 낳았다. 官昌의 죽음에 品日이 아들의 머리를 잡고 소매로 피를 씻으며 ‘능히 나라를 위하여 죽을 줄을 알았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³³⁾고 한 것은 당시 중시되었던 실천윤리인 세속오계의 덕목을 다했기 때문이다. 즉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事君以忠’, ‘事親以孝’ 두 덕목을 모두 실천한 것이다. 이것은 곧 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丕寧子の 죽음을 본 擧眞은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도 구차하게 산다면 이것이 어찌 이른바 효자이겠느냐?’³⁴⁾라고 하면서 적진에 달려 들어가 싸우다 전사한다. 여기에서 孝란 자기희생적이고 국가에 대한 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희생이 효라는 생각은 ‘죽죽’의 죽음에서도 나타나는 데³⁵⁾ 이것은 부모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 스스로 죽

32) 『三國史記』, 「列傳第七」, <金令胤>,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33) 『三國史記』, 「列傳第七」, <官昌>, “品日執其首 袖拭血曰 吾兒面目如生 能死於王事 無所悔矣”

34) 『三國史記』, 「列傳第七」, <丕寧子>, “見父死而苟存 豈所謂孝子乎 卽以劍擊折合節臂 奔入敵中戰死”

음을 택하는 것이 효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IV. 三國時代 忠孝思想의 特徵

忠의 본래적 의미를 선진유학에서 찾으려면 자주적 중심의 주체성이라는 철학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으며, 對自的 의식이나 관계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주의식³⁶⁾으로 공경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주체적 중심을 바로잡고 사회 속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不動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충이다. 또한, 충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요, 자율적이고 자주적임을 전제로 한다.³⁷⁾ 이를 바탕으로 충이 내면에서 발로하여 부모에 대하여 孝가 되고, 웃어른에 대하여 悌가 되고, 국가나 군주에 대하여 忠이 된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충은 대부분 자신을 희생으로 하며 임금에 대한 복종과 국가에 대한 보국 정신이 내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을 위한 충간이 다소 보인다. 여기에서는 讚德과 奚論, 沈那와 素那, 盤屈과 令胤, 丕寧子와 舉眞 등 부자가 순국한 기록도 충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충은 충의 본래적 의미 중에서 단지 전형적인 봉건체제 하에서의 국가나 군주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나 충의 일면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외적인 항쟁이 계속되던 삼국시대에 자주정신과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의식 속에서 국가에 대한 충이 강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효의 본래적 의미를 선진유학에서 찾으려면 반드시 공경함을 바탕으로 밖으로 드러날 때 크게 ‘無違’, ‘疾憂’, ‘奉養’, ‘恭敬’, ‘養志’, ‘幾諫’ 등의 방법적 모습을 띤다. 삼국시대 역시 부모의 봉양을 위한 희생을 효로 여

35) 『三國史記』, 「列傳第七」, <竹竹>, “吾父名我以竹竹者 使我歲寒不凋 可折而不可屈 豈可畏死而生降乎”

36) 김형효, 「忠孝思想의 현대적 의미」, 『새교육』, 서울:대한교련, 1977, p.61.

37) 엄주정, 「우리나라의 전통적 忠孝思想」, 『학생생활연구』 3집,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6. p.190.

겼으며 그 희생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발로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부모의 뜻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간언을 통하여 부모의 잘못을 고치는 데에서도 당대 효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효가 유가사상의 핵심인 仁을 행하는 근본으로 인간 사회덕목 중 최상의 덕목이며 모든 행함의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과는 다르게 삼국시대에 효는 주로 하층 민중에게는 교화수단이자 충의 하부구조로서 중시되었다.³⁸⁾

이러한 충효는 선진유학에서 충과 효가 각각 하나의 관념으로 해석되었으나, 漢代以後 처음 국가의 운영원리로 전개되면서 양자는 하나의 개념 또는 사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삼국시대 역시 4세기를 전후하여 봉건체제하의 충과 효의 개념이 유입되면서 고대국가의 기틀을 완성하는데 핵심사상이 되었다. 6세기에 이르러 하나의 사상적 근거나 이념적 기반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花郎徒이다. 다음은 眞興王代의 화랑에 대한 내용이다.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이를 風流라 이른다. 설교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있지만, 실은 三教를 포함한 것으로 민중을 교화하는 것이다. 들어가면 가정에 효도하고 나와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 이것은 공자의 중지요, 無爲의 일에 처하고 不言之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주장이며,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하는 것은 釋迦의 교화이다.³⁹⁾

三教가 이미 민중교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충효관 역시 국가사상으로서의 충과 가정 윤리로서의 효로 굳어지게 된다. 7세기는 삼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밖으로는 외세의 위협이 빈번한 시기로 충효사상의

38) 申滢植, 앞의 논문, p.14.

39) 『三國史記』, 「新羅本紀第四」, <眞興王37年條>,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일대 변환점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충효관은 개인적 ‘盡己’보다는 공적인 국가사상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효보다 충이 사상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世俗五戒의 내용 중 첫째가 충이 되고, 둘째는 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충과 효의 관계를 다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이 으뜸이요, 아들이 되어서는 효성이 으뜸이나, 위급함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만 충성과 효성이 모두 온전해진다.⁴⁰⁾

不忠으로 임금을 섬기고 累를 先人에게 끼쳤으니, 어찌 효가 되겠는가?⁴¹⁾

신이 되려면 忠誠을 다함과 같은 것이 없고, 자식이 되려면 孝誠된 일을 함과 같은 것이 없는데, 이런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던지는 것은 忠孝를 함께 하는 것이다.⁴²⁾

충을 사상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가 위급함을 당하자 나라에 대한 자신의 희생을 곧 효로 여기는 當代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충과 효는 상호분리 될 수 없고, 충의 실천 속에서 효가 형성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충과 효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효가 충의 하부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나아가 효는 충을 위해 존재하며, 충이 효 앞에 전제되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를 떠나서는 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을 미루어 효에 이르는 모습이 아닌 충과 효가 하나의 관념으로 이루어져 충과 효가 상호 분리되거나 어느 한 가지를 미루어 도달하는 것이 아닌

40) 『三國史記』, 「列傳第七」, <金令胤>,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41) 『三國遺事』, 「避隱第八」, <勿稽子>, “旣以不忠而仕君 累及於先人 可謂孝乎”

42)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五」, <太宗武烈王7年條>, “將軍欽純謂子盤屈曰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충이 곧 효가 되고 효가 곧 충이 되는 충효일치관적 성격을 띤다.

V. 結論

본 논문의 목적은 삼국시대 충효사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當代의 충효사상의 특징을 고찰 하는 데 있었다.

충효의 본질적인 개념을 견지하여 삼국시대 충효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은 처음 효의 연장선 일부로 보았던 관념이었으나 오히려 역전되어 충이라는 하나의 관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충사상은 삼국의 대치적인 국가상황을 통해 충이 효보다 강조되었다. 이때 충의 발현 모습은 대부분 자신을 희생으로 하며 군주에 대한 복종과 국가에 대한 보국 정신, 그리고 군주를 위한 충간으로 나타나 『孝經』에 나타난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충과 효가 근본적으로 뜻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죽음은 본질적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立身揚名’의 한 형태로 나타나 殉國이 報國이며, 또한 효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삼국시대 충사상은 효의 연장선에서의 개념이 아닌 충이라는 하나의 관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충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 군주를 위한 희생이나 국가에 대한 보국 정신으로 나타난다.

둘째, 효는 일반적으로 부자간의 종속적 개념으로서의 윤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후대로 오면서 하층민의 교화수단인 동시에 충의 하부구조로서 중시 되었으며 시대적 배경에 따라 군주에 대한 충성과 동일시되었다. 효는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殺身成仁, 捨生取義와 같은 사회적 성격과 함께 용기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諫言을 통한 효의 실천 모습을 볼 때, 당대의 효사상이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희생만이 아니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 효사상은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7C 무렵의 효는 나라에 대한 충이 곧 효의 개념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당대 삼국의 갈등격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8C 이후 효의 모습은 전쟁의 종식으로 충과의 관계가 완화되어, 奉養과 諫言의 모습으로만 드러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삼국시대에는 삼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외세의 위협이 심해지면서 충효관이 공적인 국가사상으로 굳어지고 충이 효보다 사상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록 충이 사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때의 충과 효는 상호 분리되거나 어느 한 가지로 미루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충효일치관적 모습을 형성한다.

<參考 文獻>

『論語』 『孟子』 『孝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金日煥, 「忠孝倫理의 思想的 體系와 理念的 展開」, 『教育研究』 14집, 公州大學校 教育研究所, 1998.

김형효, 「忠孝思想의 현대적 의미」, 『새교육』, 서울:대한교련, 1977.

류승국, 『한국의 유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申澄植, 「韓國古代史에 나타난 忠孝思想」, 『研究論文集』 11집, 誠信女子大學校, 1979.

엄주정, 「우리 나라의 전통적 忠孝思想」, 『학생생활연구』 3집,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6.

千仁錫, 「三國時代 儒學思想의 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Abstract

A Study of the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in Three Kingdom Period

- With the focus on 「the Series of Biographies」 in the 『Samguk-Sagi』-

*/ Kim Byoung Joo**

The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has been the traditionalism in the oriental culture area with succession and maintenance. Especially, filial duty is one of the unique thought in only the orient and the loyalty originated in confucianism has unique property in contrast to the royalty in the west, which demands the absolute obedience. However, the loyalty in the latter oriental culture changed the same meaning as in the west.

In this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has passed into our life and continued to this day, however it shows the different meanings and methods according to the period of history. In particular, the Three Kingdom Period was the era when the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was taken for the first time so it was the critical turning point going to the system of ancient centralized country. Use of Chinese character spread during this period as well with the change of introduction,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a variety of imported ideas. As a base on this change, the Three Kingdom had systematized their own thoughts, educated all kinds of academic lectures and achieved the great advanced culture in general. Among them, especially, the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were emphasized in terms of centralization of power and the loyalty was better than filial piety officially becoming the national thoughts by growing internal conflict within the Three Kingdom and also being external threatened from foreign powers. Even though the loyalty was superior to filial piety, they have been shown not as the mainly

* Kongju National Univ. doctor course / tjrxks@kongju.ac.kr

considered loyalty but as the one image between the loyalty and filial piety. So we can say that the loyalty and filial piety can not be separated each other but the loyalty could be filial piety and vise versa.

【Key words】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confucianism, oriental culture, Three Kingdom Period, national thoughts

투고일 : 5월 1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